GIST, 국내 첫 'AI정책전략대학원' 시동

9월 개원 앞두고 개원식·정기포럼 가져

"AI 거버넌스 선도 글로벌 인재 양성할 것"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오는 9월 개원하는 국내 최초 'AI정책전략대학원'의 출발을 알리는 첫발을 내딛었다.

15일 GIST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룡관에서 국내외 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AI정책전략대학원 개원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개원식에는 국회의원, 공공기관장, 대학 총장, 아마존웹서비스·마이크로소프트·구글 및 AI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임기철 GIST 총장의 환영사와 김준하 AI정책전략대학원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정진욱·안도걸·박균택·전진숙 국회의원, 문인 북구청장,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원장, 박상철 호남대 총장, 김동진 광주대 총장, 이주희 동신대 총장의 현장 축사와 고진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민형배·조인철·이상휘 국회의원의 영상 축사가 이어졌다.

'인공지능 : 사회변화와 도전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1회 정기포럼에서는 AI정책전략 분야의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기조발표 및 대담 등을 통해 인공지능(AI) 분야의 현안과 글로벌 동향에 대한 각자의 시각을 공유하고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기조발표 후 조숙경 한국에너지공대 교수의 사회로 대담 및 질의응답이 진행됐으며, 차인혁 GIST 석학교수와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이 패널로 참여해 글로벌 AI 동향과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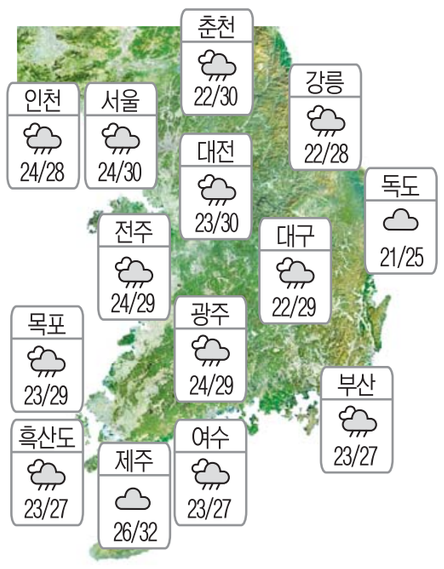
임기철 총장은 "광주는 최근 AI 산업 융합 집적단지를 비롯해 AI 분야 프로젝트들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 가운데 AI정책전략대학원의 설립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깊이 있는 도약이 될 것이며, AI정책전략대학원을 통해 미래 'AI 거버넌스'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준하 AI정책전략대학원장은 "AI 기술과 경제, 사회, 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를 융합하는 AI정책전문가 양성으로 인류와 AI의 선한 조화를 이뤄낼 것"이라며 "포럼이 인공지능을 화두로 공공과 민간, 학계·연구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AI 시대 속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모두가 '인간다움'을 다시 생각해보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GIST AI정책전략대학원은 석·박사 등 AI정책전략 전문가를 양성하는 대학원으로 오는 9월 국내 최초로 개원, GIST 본원과 AI정책전략대학원 서울캠퍼스·세종캠퍼스에서 교육과 연구가 이뤄진다. /김다이 기자

오늘의 날씨

해뜸 05:30 해짐 19:47
달뜸 15:03 달짐 00:39



광주	구름많음	24/29
목포	구름많음	23/29
여수	맑음	23/27
나주	구름많음	23/30
완도	구름많음	23/30
구례	구름많음	23/30
강진	구름많음	23/29
해남	구름많음	24/29
장성	구름많음	23/29
보성	구름많음	22/28
순천	구름많음	23/29
영광	구름많음	24/29
진도	구름많음	23/28
흑산도	구름많음	23/27
고흥	구름많음	23/29

●생활정보지수

나들이 30 우산 필요해요 / 빨래 30 실내건조 좋아요 / 세차 20 세차는 다음으로 / 운동 50 우비 챙기세요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 남부	앞바다	0.5-1.5	0.5-1.5
	먼바다(북)	1.0-2.0	1.5-2.5
	먼바다(남)	1.0-2.0	1.5-2.5
남해 서부	앞바다	0.5-1.0	0.5-1.0
	먼바다(동)	1.0-2.0	1.0-2.0
	먼바다(서)	0.5-1.5	0.5-1.5

●물때

지역	만조	간조
목포	08:51	02:26
	22:01	14:41
여수	03:53	10:10
	17:32	23:40
녹동	04:37	11:20
	18:24	--:--

●전국 날씨

날짜	광주	서울	강릉	대구	제주
7월 17일(수)	(25/30)	(24/27)	(24/30)	(25/31)	(27/33)
18일(목)	(25/30)	(24/28)	(26/31)	(25/32)	(26/33)
19일(금)	(25/30)	(24/29)	(25/32)	(24/32)	(28/33)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광주교대서 26일 '저출산·고령화 학술대회' 개최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는 15일 "오는 26일 광주교대 풍향문화관에서 '저출산·고령화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대주제로 연합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발표대회는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와 광주교대 인성예절교육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광주교대, 광주시관광공사, 전남초등도덕교과교육연구회가 후원한다. 발표회에서는 우리사회의 심각한 저출생과 고령화, 갈등과 혐오, 생태 파괴의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하고, 디지털 소양과 인공지능 윤리 함양 방안 등에 대해 탐색한다.

노희정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장은 "교육현장과 대학 간 활발한 소통과 공유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다이 기자

"한국 태권도 배우러 왔어요" 세계 각국 태권도 수련생 가족들의 화합의 장인 '2024 광주국제태권도아카데미'에 참가한 외국인들이 15일 오후 조선대학교 체육관에서 태권도 품새를 익히고 있다. 11개국 200여명의 수련생 가족과 지도자들은 7박8일간의 일정으로 태권도와 광주 문화 체험활동을 할 예정이다. /김애리 기자

市, 폐지 수집 어르신에 '폭염 안전 일자리' 제공

내달 자원재생활동단 운영…활동비 최대 20만원

광주시가 폭염 등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폐지 수집 어르신의 건강 보호와 생활 안정을 위해 극심한 무더위가 예상되는 8월 한 달간 '자원재생활동단'을 운영한다.

자원재생활동단은 폐지 수집 어르신들이 폭염 기간에는 폐지 수집 대신 재활용품 선별 작업이나 분리 배출 홍보 등 무더위 영향을 덜 받는 대체 일자리를 제공한다.

자원재생활동단으로 선정되면 8월 한 달 동안 주 2회, 하루 2시간씩 거주지와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나 자원순환가게 등에서 재활용품 선별 또는 분리 배출 홍보 등 자원순환 일자리에 배치된다. 활동비는 일한 시간에 비례해 산정하며 최대 2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예산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해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과 생계급여수급자는 참여할 수 없다.

자원재생활동단 참여 희망자는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치구의 거주지 인근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지원신청서·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9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치구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채용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5월 폐지 수집 어르신에게 보다 근본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위해 '재활용품 수거인 지원 조례'를 개정해 폐지 수집 어르신이 재활용품 사전 선별 등 안전한 일자리에 참여할 경우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광주지역에는 조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폐지 수집 어르신이 607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는 또 KB국민은행의 기부로 폐지 수집 어르신의 안전 보호를 위한 경량손수레 160여대를 지원한다. /박선강 기자

"폐 배터리, 꼭 분리수거 해주세요"

광주소방, 화재·폭발 위험…전용 수거함 배출 당부

광주시소방안전본부는 15일 대형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폐 전지 분리수거 생활화를 당부했다.

최근 경기도 화성시 배터리 공장 화재로 인해 근로자 23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함에 따라 전지 관련 화재 예방에 대한 경각심이 연일 강조되고 있다.

폐 배터리 등을 일반 쓰레기와 같이 버릴 경우 분쇄 과정에서 발생한 불꽃이 폐기물에 착화돼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남아있는 잔류 전류가 충격이나 압력, 고온에 노출될 경우도 폭발의 위험이 있어 분리 배출이 매우 중요하다.

광주소방은 일상에서 완전히 사용한 건전지 등은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고 전지 내장제품의 경우 전지를 분리해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는 등 화재예방의 생활화를 강조했다.

전용수거함에 배출할 수 없는 경우 한국전지재활용협회(02-6954-0666~8)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일 광주소방안전본부 방호예방과장은 "폐 전지 분리 배출과 같은 작은 습관들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선강 기자